

# 광주 시민에 아름다운 클래식 헌정

‘제13회 광주국제음악제’ 9월 6~7일 빛고을 시민문화관  
광주시향·도쿄프라이임포니 등... 김홍재 지휘·손민수 협연

‘광주국제음악제’가 올해로 13회째를 맞았다. ‘광주국제음악제’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세계 여러나라의 연주자들을 연합해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고 유명 지휘자를 초청해 광주시민들에게 아름다운 클래식 무대를 선사해왔다.

‘제 13회 광주국제음악제’가 오는 9월 6일과 7일 오후 7시 30분 광주빛고을 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Dedicated to Gwangju citizens’ (광주 시민에의 헌정)이라는 제목으로 김홍재가 예술감독을 맡아 대중들에게 친숙한 레퍼토리로 이들 간의 클래식 공연을 펼친다.

올해 공연은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연합 오케스트라 대신 광주시향과 서울시향, 도쿄프라이임포니, 쉐퍼우시포니 등 아시아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 단원들로 연합 연주단을 꾸렸다. 특히 실력과 협업자들이 눈에 띈다.

6일 공연은 광주시향 예술감독을 지낸 바 있는 김홍재가 지휘봉을 잡아 토마 ‘레이몬드 서곡’으로 공연을 시작한다. 이어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을 피아니스트 손민수와 협연한다.

손민수는 최근 반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최연소로 우승한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스승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어 리스트 ‘헝가리 광시곡 제2번’을 들려주며 뒤이어 ‘동심초’ 무대에는 소프라노 김순영이 함께한다.

김순영은 스위스 제네바 국제 콩쿠르, 동아음악 콩쿠르 등 다수의 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오페라는 물론 뮤지컬에서도 활발히 활동 중인 국내를 대표하는 소프라노라 할 수 있다. 이어 ‘내마음의 강물’, 드보르작 오페라 ‘루살카’ 중 ‘달에게 부치는 노래’를 선사한다.

이날 공연의 백미는 피날레 곡인 ‘임을 위한 행진곡’에 의한 교향적 환상곡이다. 5·18민주화 운동을 묘사한 김 신의 창작 관현악곡으로 이날 공연의 주제가 맞아 떨어지는 곡이다.

7일 공연의 지휘는 소가 다이스케가 맡는다. 소가 다이스케는 도쿄프라이임포니 수석 지휘자이자 일본 내 여러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를 역임한 바 있다.

이날 공연은 오펜바흐 ‘천국과 지옥 서곡’을 시



김홍재



손민수

작으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무대에는 피아니스트 알렉산드로 마차무토가 협연한다. 알렉산드로 마차무토는 지난 2011년 페루치오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 특별상 수상자로 카네기 홀과 도쿄메트로폴리탄 예술극장을 비롯한 세계 유명 극장 무대에 오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다. 이어 토마 ‘레이몬드 서곡’, 소프라노 김순영이 ‘마중’을 부른다.

또 ‘내마음의 강물’, 드보르작 오페라 ‘루살카’ 중 ‘달에게 부치는 노래’, 리스트 ‘헝가리 광시곡 제2번’을 연주한다.

S석 5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문의 062-226-2032.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제12회 광주국제음악제 공연 상황

## 고산문학대상에 김명기·선안영 시인

상금 각 2000만원

제22회 고산문학대상에 현대시 부문 김명기 시인, 시조 부문에서 선안영 시인이 각각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작품집은 각각 ‘돌아갈 곳 없는 사람처럼 서 있었다’와 ‘저리 어여쁜 아홉 꼬리나 주시지’이며 상금은 각 2000만원.

고산문학대상 운영위는 지난 1년 간 출간된 시집을 대상으로 현대시와 시조 부문에서 각 100여 명의 시인, 평론가들의 추천을 받아 심사해 들어갔다.

현대시 심사를 맡은 김명인·이문재 시인, 문해원 평론가는 “거듭 읽어낼수록 삶의 파장들이 깊은 감동까지 거느리며 가슴속으로 번져나가 그 파문에 흠뻑 젖게 만드는 흡인력”이 있으며 “삶의 우여곡절과 신산고초를 통과해온 자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진정성의 언어’로 절묘한 표현이나 세련된 구성이 없이도 충분히 좋은 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평했다.

김명기 시인은 경북 울진 출신으로 2005년 시전문지 ‘시평’ 겨울호를 통해 등단했으며 시집으로 ‘복평장남 만난 제 계바라’, ‘중점식당’을 펴냈으며 2017년 대구경북작가회의가 주관하는 제2회 작가정신 문학상을 수상했다.

시조 심사는 박기섭·박현덕 시인·황치복 평론가가 맡았다. 심사위원들은 “현실언어를 끊임없이 초월언어로 바꾸어놓고, 직박 표현으로 말미암은 수사의 적중률이 높은 데다, 그 형식의 운용은 자연스러운 미학에 닿아 있다”고 평했다.

보성 출신의 선안영 시인은 조선대 사범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했으며 2003년 경향신문 신춘문예 시조로 등단했다. 시집으로 ‘초록 몽유’, ‘목이 긴 꽃병’ 등이 있으며 중앙일보 시조대상 신인상, 한국시조시인협회 올해의 시조집상 등을 수상했다.



김명기 시인



선안영 시인



아울러 고산문학대상 신인상에는 현대시 부문 윤계순 시인의 ‘실비집’이, 시조 부문에는 강영임의 ‘벗꽃, 천라지랑’이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상금 각 300만원.

올해 6회째를 맞은 고산신인문학상은 미등단 문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제다. 올해는 신인상 응모에 시부문 700여 편, 시조 부문 500여 편이 접수됐다.

한편 시상식은 제22회 고산문학축전과 함께 오는 10월 14일 고산의 고택이 있는 해남읍 연동리 고산유적지 땅끝순례문화관 문학의 집 ‘백련재’에서 열린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내셔널솔리스트연상블

28일 금호아트홀

내셔널솔리스트연상블 정기연주회가 오는 28일 오후 7시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공연 레퍼토리는 비발디 ‘사계’와 라이네케 ‘현을 위한 세레나데 8단조’ 등이다.

이날 공연에는 차이코프스키콩쿠르 3위를 수상하고 동양인 최초 독일 바이올린방송교향악단 여성악장으로 활동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이지혜가 협연자로 나선다.

지휘는 이규서가 맡는다. 이규서는 서울대 음대와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를 졸업했다. 20세에 예술의 전당에 데뷔, 대학시절 인천시립교향악단을 지휘한 경력에 있는 그는 세련된 바톤 테크닉 등으로 촉망받는 젊은 지휘자 중 한명이다.

바이올린에 이준·오인표·임리경·박주양·김소연·박소연·이무송·김미현·황은울, 비올라 김현경·양운서·신세민·김자훈, 첼로 이후성·정아름·김성복·나유빈, 더블베이스 권세롬, 첼발로 오주희가 함께한다.

내셔널솔리스트연상블은 광주와 전남에서 활동하는 음악가들이 문화적 소외지역을 찾아 연주봉사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전석 2만원. 문의 010-7712-4431.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고난에서 얻는 지혜와 삶의 긍정’

인문지행 독서아카데미, 31일~9월28일 푸른마을공동체센터

고난을 주제로 한 독서아카데미가 열린다. 특히 고전 작품을 집중적으로 다뤄 고전에서 얻는 인문정신을 일상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자 한다.

(사)인문지행은 ‘고난에서 얻는 지혜와 삶의 긍정’을 주제로 오는 31일부터 9월 28일까지 ‘푸른마을공동체센터’ (동구 동명로 67번길 29)에서 독서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독서아카데미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독서문화를 확장하기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장기간의 팬데믹 상황과 이로 인한 관계의 고립과 단절, 불안 감정의 적극적인 극복 및 주제적인 자기회복능력의 확장에 역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독서를 통해 고통과 고난을 극복하는 삶의 지혜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자는 취지다.

첫 강연은 박해용 박사(서양철학)가 ‘모비 딕-고래를 쫓는 인간의 욕망과 그 결말’이라는 주제로 문을 연다. 이후 4회는 심숙 박사(인문지행 대표)가 그리스 고전과 니체, 수전 손택을 중심으로 고통과 지혜, 실존적 의미, 타인의 고통과 문학



박해용(왼쪽) 박사와 심숙 박사.

의 역할 등을 주제로 강연한다.

한편 10월 5일 시작하는 3부 프로그램은 송경동 시인, 이승우 작가, 이동순 교수와 신형철 교수가 함께 한다.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10-5205-5668.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한여름 밤 ‘이탈리아의 향기’

광주문화재단 월요콘서트, 22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8월의 한여름 밤 무더위를 식혀 줄 이탈리아 가곡이 시민들을 찾아온다.

광주문화재단은 열두 번째 월요콘서트로, 이탈리아 예술가곡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오는 22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

‘이탈리아의 향기’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월요콘서트는 ‘사단법인 강숙자 오페라라인’이 출연하며 시대별 대표 작곡가의 곡들로 꾸며져 가곡의 변화와 흐름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공연은 손숙경·윤하나 소프라노, 박선경 메조소프라노, 김정규·진세현 테너, 피아노 김성근 등이 출연하며 해설 및 예술감독은 강숙자 씨가 맡는다.

지난 2001년 창단된 강숙자 오페라라인은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을 첫 공연으로 현재 32회 정



강숙자

기 오페라 공연 및 갈라 콘서트 등 공연을 기획했다. 문화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음악회’, ‘청소년과 함께 하는 음악회’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오페라 ‘잔니스키기’ 공연을 매개로 시민들의 문화 향유에 기여하고 있다.

선착순 100명이며 관람은 사전 전화예약을 받는다. 문의 062-670-7926.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생명의 나무 구하러 출발~”

뮤지컬 ‘플라스틱 몬스터’, 9월4일까지 유·스퀘어 동산아트홀



‘생명의 나무를 지키러 떠나는 모험.’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다룬 어린이 뮤지컬 ‘플라스틱 몬스터’ (사진)가 오는 9월 4일까지 유·스퀘어 문화관에서 상연된다.

‘플라스틱 몬스터’는 심각한 해양 쓰레기 문제로 인해 위기를 맞이한 지구 구하기 위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 거북이 노아가 꼬마 박사 홍미소를 만나 생명의 나무를 구하러 가는 여정을 담고 있다.

노아와 미소의 모험을 통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해양 쓰레기 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공연은 무대부터 의상, 로비 곳곳에 있는 조형물까지도 버려진 쓰레기로 제작돼 극장 곳곳

에 재활용된 쓰레기를 찾는 게 하나의 재미 요소다. 공연 관람 외에도 업사이클링 제품 전시와 리사이클링 체험존을 함께 경험할 수 있어 아이들이 버려진 자원들이 재활용되는 일련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딱딱하고 지루한 학교수업과는 달리 뮤지컬을 통해 해양 환경에 대해 즐겁게 배워 볼 수 있는 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30분,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2시·4시, 일요일 오전 11시·오후 2시 상영하며 그밖에 요일은 휴무다.

12개월 이상 관람가능 전석 4만 원. 러닝타임 70분. 문의 1600-6689.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